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및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김 경 은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 연 아²⁾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생애 초기 부모와의 불안애착이 사회적 관심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에 동의한 보육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초기 부모애착척도(Early Parental Attachment Scale: EPAS), 사회적 관심 척도(Social Interest Inventory) 및 직무열의 척도(Utrecht Work Engagement Scale)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모델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와의 불안애착은 사회적 관심 및 직무열의와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사회적 관심은 직무열의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초기 불안애착은 사회적 관심을 통해 직무열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보육교사의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이해, 타인 및 공동체의 복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 관심, 불안애착, 직무열의, 보육교사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인간발달학회·가정과삶의질학회 온라인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2)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E-mail: 114407@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 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영유아보육의 정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은 단순히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단순히 영유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보육은 다른 직종에 비해 서비스 대상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수의 이질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이재무, 2016), 보육교사들이 직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이로 인한 소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이지영, 김성원, 2019).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기존에 질병, 고통, 문제 등에 초점을 두어 온 전통적 접근을 비판하며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Bakker & Schaufeli, 2008).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보육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갈등, 직무소진 혹은 직무이직보다는 직무만족(김연아, 박연정, 김경은, 2014), 직무열의(민

하영, 2020; 이재무, 2016; Wang & Qin, 2011)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에너지(활력) 측면에서 직무소진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1990년대 껀럽 조사에서 처음 사용된 직원 열의(관여)(employee engagement)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Buckingham, & Coffman, 1999). Kanh(1990)에 따르면, 직무열의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 역할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직무열의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May, Gilson, & Harter, 2004; Rothbard, 2001), 직무에 대한 활기, 헌신과 몰입의 특성을 갖는다(Soane et al., 2012). 활기(vigor)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의 인내심, 정신적인 회복력 등을 의미하고, 헌신(dedication)은 직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몰입(absorption)은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이를 보육교사에게 적용해보면, 보육교사의 직무열의는 보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육업무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민하영, 2020). 즉,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육교사로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무열의가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Harter, Schmidt & Hayes, 2002; Warr & Inceoglu, 2012)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여러 연구(김정미, 이선경, 2019; 이재무, 2016; Bakker & Bal, 2010; Hakanen, Bakker, & Schaufeli, 2006)에서 교사의 직무열의는 직무만족, 직무수행과 영유아 상호작용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직무열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의 직무열의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자원(Bakker, Hakanen, Demerouti, & Xanthopoulou, 2007), 교수효능감, 근무환경(Konermann, 2012) 등 보육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낮고,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게 나타났다(김안나, 2018),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고 조직 분위기가 민주적일수록 직무열의가 높게 나타났다(이재무, 2016). 최근 들어서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행복감,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김안나, 2018; 민하영, 2020)가 이어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가질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동료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원장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온정적일수록 직무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경, 김정미, 2018).

실제로 보육교사의 업무는 생산직이나 제조

업 등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학부모, 동료 교사와 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보육교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볼 때, 보육교사가 보육업무 수행에 에너지를 쏟고, 헌신하며 몰입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민하영, 2020). 이런 측면에서 보육교사 관계성의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애착 및 사회적 관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형성된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생애 전반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지적, 정서적 도식은 이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Mallinckrodt & Wei, 2005; Pietromonaco & Feldman, 2000).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안정된 애착은 이후 자기 의존, 정서조절능력, 사회적 유능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roufe, 2005). 게다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부부 관계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태아와의 안정된 애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8). 반면, 생애 초기에 형성된 불안정애착은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의 초기 부정적 애착은 이후 성인기의 불안, 우울, 사회적 단절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nny & Donaldson, 1991; Morley & Moran, 2011; Thompson, 2008). 또한 어린 시절 부모와 관계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모와의 부적응적 관계가 부부관계에서 재현되어 부부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해 자녀에게 친밀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기도 한다(Rizzuto,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관계에서 관계성의 긴장과 불안을 의미하는 불안애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정 애착은 불안애착(insecure-anxious/ambivalent attachment)과 회피애착(insecure-avoidant attachment)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불안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애정과 관심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부모로부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회피애착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와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김미선, 2016). 특히 초기 불안애착은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불안애착 유형은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더 몰입하고 과도한 친밀감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이처럼 불안애착 유형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데, 이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Shaver & Mikulincer, 2002). 특히 불안애착 유형은 일상에서 과한 염려와 두려움을 느낌에 따라 특성 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Mikulincer & Shaver, 2007).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불안애착에 초점을 두고 불안애착과 사회적 관계 및 직무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성인애착이 이후 성인기의 직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혜경, 최혜경, 2008; 이수진, 김상옥, 2019; 임혜경, 2013).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애착과 행복,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은 직무만족과 부적인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은 행복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김상옥, 2019). 또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애착과 직무효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학생생활지도, 복무관리,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주, 2007). 성인애착은 생의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West, Sheldon, & Reiffer, 1987)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이후 성인기 직무에 대한 열정이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불안애착은 개인의 불안,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관계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유발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여러 업무 중 영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관계에서의 원형적 태도라 볼 수 있는 부모와의 애착은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생애 초

기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은 보육교사의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들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려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Adler의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은 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Adler, 1958; Crandall, 1981). 특히 사회적 관심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존중하는 능력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의미한다(Crandall, 1981). 연구자들마다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회 공동체에서의 소속감, 타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사회적 협력을 표현하는 능력을 포함한다(정민, 2013). 이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심은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확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Macaskill, Maltby, & Day, 2001), 공동체 적응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ozdzierz, Greenblatt, & Murphy, 1988).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상호작용,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대인관계가 주요 업무 특성으로 평가되는 보육교사의 직무활동에서 사회적 관심은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사회적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에게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더 많은 격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a & Roy, 1995). 또한 보육교사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보육에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집중하는 직무열의가 높고(민하영, 2020), 영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하영, 2019). 이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심은 초기 부모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민, 이미라, 노안영, 2006; Rennebohm, Seebeck, & Thoburn, 2017; Weber, 2003). 아德勒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적 관심은 부모의 양육과정에서 발달될 수 있고, 발달되어져야 한다(Ansbacher & Ansbacher, 1956). 즉, 사회적 관심은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동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처음으로 사회적 관심을 인지하기 때문에, 어린 시기 주 양육자와 경험하는 갈등은 아동의 사회적 관심과 이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Peluso, Peluso, White, & Kern, 2004). 특히 불안애착의 경우 부모와의 일관적이지 못한 불안정한 관계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불안애착의 경우 관계에서의 불안이나 긴장성이 높아(Brennan et al., 1998)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하고 배려가 취약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및 긍정적 태도, 복지에 대한 실천 등을 포괄한다(Crandall, 1981)고 할 때, 보육교사가 경험한 부모와의 불안애착은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타인의 배려와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적 관심은 이후 보육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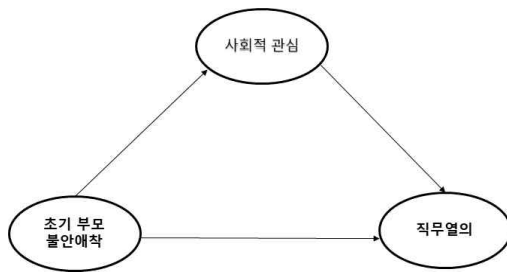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초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은 사회적 관심과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은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와의 불안애착 경험,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직간접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은 초기 부모불안애착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초기 애착과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A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중 설문 조사 참여에 동의한 207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3년 이하의 교육경력자는 39명(18.8%), 4~10년 미만은 158명(76.4%), 10년 이상은 10명(4.8%)으로 나타났다. 30대 미만은 47명(22.7%), 30~40대 미만은 53명(25.6%), 40대 이상은 107명(51.7%) 이었다. 고졸자는 32명(15.5%), 2~3년제 졸은 113명(55.6%), 대학 이상은 62명(30.0%)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선(2016)의 초기 부모 애착척도(Early Parental Attachment Scale: EPAS) 중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불안애착은 어린 시절 불안정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관심에 대한 지나친 욕구와 버려짐이나 거절의 두려움을 나타낸다(김미선, 2016).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어머니가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화가 났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초기 부모 불안애착은 단일 요인이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묶음 방법을 사용(맹세호, 구소희, 조영일, 2018)하여 불안1(3문항), 불안2(5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정민(2013)의 사회적 관심 척도(Social Interes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관심은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태도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주위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공감을 잘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직무열의

본 연구에서 직무열의는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가 개발한 척도(Utrecht Work Engage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직무열의는 직무활력, 직무헌신, 직무몰두 등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직장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열의를 갖고 내 일을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9문항,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A 지역 하계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에게 1차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 후 질문지 조사 참여 여부를 알아보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응한 교사들에게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이 시작되는 시간에 각 2차례에 걸쳐 방문하였고, 연구보조원을 통해 질문지의 응답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지를 배부한 후, 수업이 끝난 후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230부 중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 23부는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7명이다.

4. 자료분석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χ^2 , RMSEA, GFI, TLI, NFI, CFI 값을 살펴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5,000회로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관계

우선,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이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부모불안애착 평균은 17.08($SD = 7.81$)이었다. 사회적 관심의 평균은 57.25($SD = 6.41$), 직무열의의 평균은 45.30($SD = 9.13$)이었다. 초기 부모불안애착과 사회적 관심 간

표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20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초기 부모 불안애착	1									
2 불안애착1	.98***	1								
3 불안애착2	.77***	.68***	1							
4 사회적 관심	-.19**	-.16*	-.17*	1						
5 사회행동	-.17*	-.14*	-.13	.90***	1					
6 사회태도	-.17*	-.43**	-.18*	.89**	.59***	1				
7 직무열의	-.14*	-.11	-.16*	.53***	.50***	.45***	1			
8 직무활력	-.13	-.10	-.14	.53***	.52***	.42***	.93***	1		
9 직무헌신	-.14	-.10	-.15*	.47***	.42***	.43***	.94***	.83***	1	
10 직무몰두	-.12	-.09	-.17*	.47***	.44***	.40***	.90***	.72***	.78***	1
<i>Mean(SD)</i>	17.08 (7.81)	10.64 (5.12)	7.39 (3.19)	57.25 (6.41)	30.18 (3.69)	27.06 (3.51)	45.30 (9.13)	14.07 (3.40)	15.41 (3.29)	15.82 (3.20)
Skew	.94	1.11	.51	-.06	-.19	.01	-.34	-.19	-.47	-.43
Kurtosis	.53	1.24	-.46	.92	.61	.18	.70	.28	.70	.03

* $p < .05$. ** $p < .01$. *** $p < .001$.

상관관계는 $r = -.19(p < .01)$, 초기 부모불안애착과 직무열의 간 상관관계는 $r = -.14(p < .05)$, 사회적 관심과 직무열의 간 상관관계는 $r = .53(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측정 변인들의 왜도는 3미만이고, 첨도는 10미만인 값을 나타냄으로써 정상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2. 구조모형 검증: 초기 부모불안애착과 직무열의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의 측정 변인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그림 2 참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8.91(df = 11, p > .05)$, GFI = .98, TLI = .98, NFI = .97, CFI = .99, RMSEA = .06으로 나타났다. TLI > .90, NFI > .90, CFI > .90의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고, RMSEA < .08의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므로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하다(Hoyle, 1995)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과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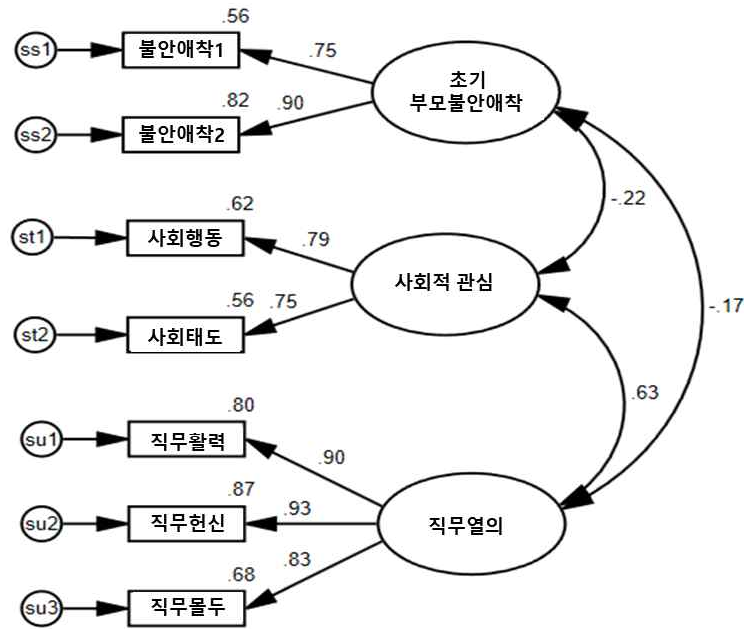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표 2. 구조모델 적합도

model	적합도 지수	χ^2	df	p	$\Delta\chi^2$	RMSEA	GFI	TLI	NFI	CFI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18.91	11	.06		.06	.98	.98	.98	.99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19.12	12	.09	.21	.05	.98	.98	.97	.99

18.91, $df = 11$, $p > .05$, GFI = .98, TLI = .98, NFI = .98, CFI = .99, RMSEA = .06). 한편, 초기 부모불안애착에서 직무열의로 가는 경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치 않음을 고려하여, 이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3 참조). 경쟁모형의 적합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9.12$, $df = 12$, $p > .05$, GFI = .98, TLI = .98, NFI = .97, CFI = .99, RMSEA = .05).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더 간단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Delta\c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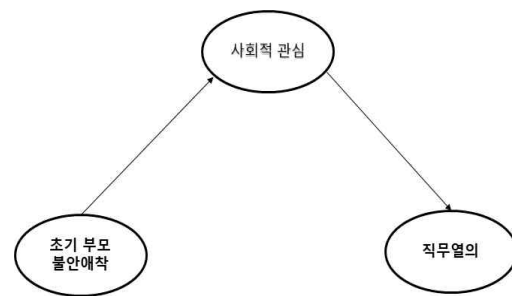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 .21, $p > .05$). 즉,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모불안애착에서 직무열의로 가는 경로가 삭제

된 완전매개모델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인 완전매개모델의 경로계수를 알아보았다. 표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은 사회적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beta = -.24, p < .01$), 사회적 관심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4, p < .001$). 즉, 보육교사가 어린 시절 부모와 불안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낮고,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부모불안애착과 직무열의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이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부모불안애착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의 간접효과($\beta = -.15$)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아지고, 낮아진 사회적 관심은 직무열의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보육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애착 점수가 낮을수록 다른 사람에

표 3. 최종모형(완전매개모형) 추정치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초기 부모불안애착 → 사회적 관심	-.24	-.18	.07	-2.62**
사회적 관심 → 직무열의	.64	.67	.10	6.9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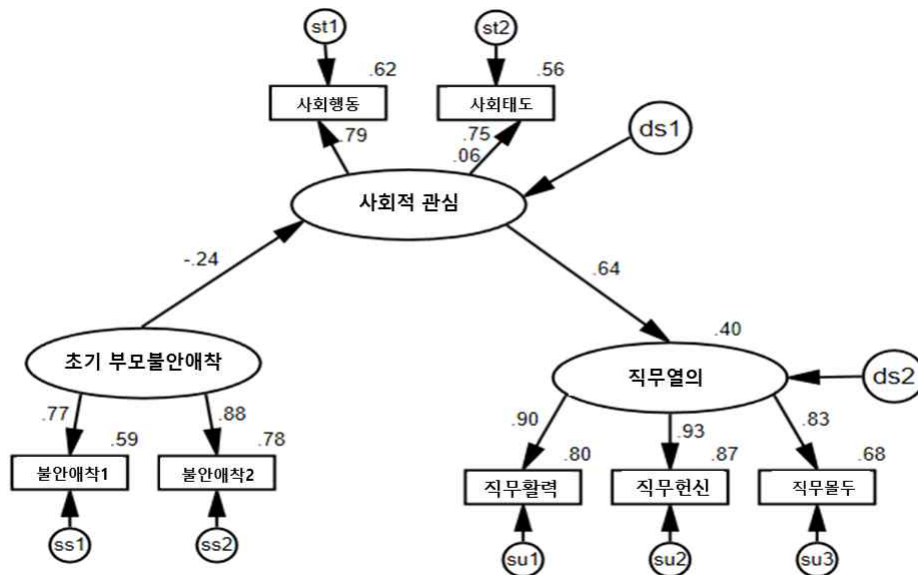


그림 4. 완전매개모델 추정치

표 4.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 직·간접 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초기 부모불안애착 → 사회적 관심	-.24 ^{***}	-.24 ^{***}	-
초기 부모불안애착 → 직무열의	-.15 ^{**}	-	-.15 ^{**}
사회적 관심 → 직무열의	.64 ^{***}	.64 ^{***}	-

** $p < .01$. *** $p < .001$.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높은 사회적 관심은 직무열의를 높리게 된다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은 직무열의와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초기 부모애착에서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게 나타났다. 어린 시절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과도한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보육교사들은 직무에 대한 동기나 열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애착이 직무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김상옥, 2019; 노혜경, 최혜경, 2008; 임혜경,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개인이 어린 시절에 형성한 애착은 내적작동모형을 통해 이후의 사고나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Mallinckrodt & Wei, 2005)는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최근 들어,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 아주 어린 연령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영유아들에게 보육교사는 제 2의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 영유아들은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성을 얻고 신뢰감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육교사 자신이 원부모와 갖는 애착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경우 인지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해 부적응적으로 생각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갖는 경우가 많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런 점에서, 어린 시절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역기능적인 신념을 감소시키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 관련 지원에서 보육교사의 어린 시절 원부모애착에 관한 관심과 상담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협력하는 성

향이 높을수록 보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전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나 서비스 직종 근무자가 타인의 경험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할수록 직무열의가 높다는 선행연구(민하영, 2020; 최현서, 유기웅, 2018; 허창구, 조중연, 신강현, 2013)를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란 사회 공동체에서의 소속감과 동료애(Powers & Griffith, 1984), 협력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Dreikurs, 1989). 또한, 사회적 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응기술이 높고, 에너지가 높으며, 일상의 문제에 좌절하기보다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 한다(Raeshide & Kern, 1991). 유사한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보육교사는 교사로서 자신이 속한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고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영유아와 그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다(민하영, 2019).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그들 부모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을수록 보육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열정이 높으며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몰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질 높은 보육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은 사회적 관심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생의 초기에 비일관적인 양육으로

인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경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 수준이 낮고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생애 초기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Ansbacher & Ansbacher, 1956), 사회적 관심 수준은 원부모와의 애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정민 외, 2006; Weber, 2003)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별 영유아의 기본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상호작용해야 하며, 부모 및 동료 교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은 보육의 전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상담 분야에서는 사회적 관심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Watts & Trusty, 1995)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사의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타인 및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실천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심(Crandall, 1981)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관심이 무엇인지, 사회적 관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불안애착,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의 불안애착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회적 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 열의에 미치는 불안애착의 영향은 사회적 관심을 매개로 한 간접 영향임을 의미한다. 생애 초기 부모와 불안애착이 강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아지고, 낮아진 사회적 관심에 의해 직무열의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애착은 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위축시킴으로써 직무에 대한 활기, 헌신, 몰입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부모와 불안애착이 낮을 경우 타인에 대한 관심 및 배려, 공동체 복지 증진 등과 같은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사회적 관심은 직무 열의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lbersheim, 2000),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교사의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계는 갖는다(이병록, 2011)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사회적 관심을 통해 보육교사 직무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열의 향상에 있어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은 타인의 이익과 복지를 먼저 고려하고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성향으로(Adler, 1958; Crandall, 1981; Mozdierz et al., 1988), 사회적 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자신을 타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함에 따라(Ansbacher, 1992)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주저

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포용력과 친밀감을 보인다. 실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심 수준이 높은 보육교사는 영유아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하영, 20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 현장에서 어린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보육교사에게 있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동체를 위한 협력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관심은 필수적인 직무 역량이라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은 타고나는 특성이기는 하나, 저절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Ansbacher, 1992). 실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은 주요한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것(Guzick, Dorman, Groff, Altermatt, & Forsyth, 2004)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정서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관심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비관적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Hamm, Carlson, & Erguner-Tekinalp, 2016). 일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관심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소속감, 사회적 관심 갖기, 대인관계 지향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윤재원, 강영신,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관심이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기는 하나, 성장하면서 학교 장면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Guzick et al., 2004), 이후 사회에서 주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보

육교사가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이후 또래나 교사, 연인들과 신뢰롭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경우 사회적 관심은 발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 및 공동체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교사는 다양한 업무수행에 대한 열정을 높였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보육교사의 직무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의 사회적 관심 수준을 진단해보고, 보육에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자신의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하고 아동, 부모 및 어린이집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육교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다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의 초기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관심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보육교사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근무 환경, 원장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이들 변인 간의 직간접적 관계를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업무는 대인관계나 소통적인 측면의 업무

외에도 보육과정 및 행정 업무와 같은 다양한 직무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직무열의를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 보육교사의 경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영역에 따라 직무열의가 다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무영역에서의 직무열의를 측정함으로써, 각 영역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아닌 부모와의 초기 애착 경험을 기반으로 애착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수의 애착연구들이 성인애착을 기반으로 애착과 직무활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모와의 초기 애착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이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 직무열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불안애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적, 환경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애착은 개인의 기질, 부모의 민감성 및 반응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복지 증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육교사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만큼, 보육교사의 사회적 관심

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8).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1), 1-2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에서 2020년 12월 12일 인출
- 김미선 (2016). 초기부모애착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4), 95-113.
- 김상옥 (2019).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및 교사 효능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5(1), 89-119.
- 김안나 (2018). 유아교사의 직무열의 관련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아탄력성, 직무스트레스, 행복감, 직무열의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3(5), 293-315.
- 김연아, 박연정, 김경은 (2014).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이 보육교사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15.
- 김정미, 이선경 (2019).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1), 621-635.
- 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9(4), 339-359.
- 노혜경, 최혜경 (2008). 성인기 애착과 사랑이 조직생활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77-112.
- 맹세호, 구소희, 조영일 (2018).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문항묵음의 활용: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용 기반접근법의 비교연구. *인간발달연구*, 25(3), 73-89.
- 민하영 (2019). 보육교사의 주도적 성향, 사회적 관심 및 교사-유아 관계 효능감 간 경로모형 탐색.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4(3), 21-38.
- 민하영 (2020). 보육교사의 직무열의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관심의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5(3), 31-48.
- 윤재원, 강영신 (2017). Adler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사회적 관심 향상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1), 99-125.
- 이병록 (2011). 보육교사의 인간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2), 1-21.
- 이선경, 김정미 (2018). 어린이집 원장의 감정 리더십과 교사의 직무열의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4(2), 579-594.
- 이수진, 김상옥 (2019). 유아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환경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9(4), 171-188.
- 이윤주 (2007). 중학교 교사의 애착유형과 직무

- 효율성과의 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무 (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진퇴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 조직몰입의 조절 효과. *육아정책연구*, 10(2), 51-82.
- 이지영, 김성원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보육교사 소진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923-939.
- 임혜경 (2013). 콜센터 중간관리자의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문명연지*, 14(2), 189-212.
- 정민 (2013). 사회적 관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4(4), 2571-2583.
- 정민, 이미라, 노안영 (2006).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1023-1038.
- 최현서, 유기웅 (2018). 기업교육 강사의 공감 능력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30(4), 481-509.
- 허창구, 조중연, 신강현 (2013). 서비스 장면에서 감정이입(정서전염, 공감배려)이 직무탈진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6(4), 579-597.
- Adler, A. (1958).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New York: Capricorn.
- Ansbacher, H. L. (1992). Alfred Adler's concepts of community feeling and of social interest and the relevance of community feeling for old age.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48(4), 402-412.
-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Eds.).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Oxford England: Basic Books.
- Bakker, A. B., & Bal, M. P. (2010). Weekly work engagement and performance: A study among starting teache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3(1), 189-206.
- Bakker, A. B., Hakanen, J. J., Demerouti, E., & Xanthopoulou, D. (2007). Job resources boost work engagement, particularly when job demands are hig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2), 274-284.
- Bakker, A. B., & Schaufeli, W. B. (2008).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Engaged employees in flourishing organiz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9(2), 147-154.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uckingham, M., & Coffman, C. (1999). *First, break all the rules: What the world's greatest managers do differently*. New York: Simon & Schuster.
- Crandall, J. E. (1981). *Theory and measurement of*

- social interest: Empirical tests of Alfred Adler's concep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na, E., & Roy, K. (1995). The implications of teachers' social interest on classroom behavior. *Individual Psychology: The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51(1), 67-73.
- Dreikurs, R. R. (1989). *Fundamentals of Adlerian psychology*. Chicago, IL: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Guzick, D. T., Dorman, W. J., Groff, T. S., Altermatt, E. R., & Forsyth, G. A. (2004). Fostering social interest in schools for long-term and short-term outcome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0(4), 361-378.
- Hakanen, J. J., Bakker, A. B., & Schaufeli, W. B. (2006). Burnout and work engagement among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6), 495-513.
- Hamm, J. S., Carlson, J., & Erguner-Tekinalp, B. (2016). Adlerian-based positive group counseling interventions with emotionally troubled youth.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2(4), 254-272.
- Harter, J. K., Schmidt, F. L., & Hayes, T. L. (2002). Business-unit-leve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satisfaction, employee engagement, and business outcome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2), 268-279.
- Hoyle, R. H. (1995).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Basic concepts and fundamental issu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1-15). Thousand Oaks, CA: SAGE.
- Kahn, W. A.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4), 692-724.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486.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onermann, J. (2012). *Teachers' work engagemen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job and personal resources in relationship to work engagement, its antecedents, and its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eit Twente, Enschede, Netherlands.
- Macaskill, A., Maltby, J., & Day, L. (2001). An exploration of social interest in British students post-conservatism.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7(4), 388-39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58-367.

- May, D. R., Gilson, R. L., & Harter, L. M. (2004). The psychological conditions of meaningfulness, safety and availability and the engagement of the human spirit at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7(1), 11-37.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orley, T. E., & Moran, G. (2011). The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in early childhood: Mechanisms linking early attachment to late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7), 1071-1082.
- Mozdzierz, G. J., Greenblatt, R. L., & Murphy, T. J. (1988). Further validation of the sulliman scale of social interest and the social interest scale.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44(1), 30-34.
- Peluso, P. R., Peluso, J. P., White, J. F., & Kern, R. M. (2004). A comparison of attachment theory and individual psychology: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2), 139-145.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55-175.
- Powers, R., & Griffith, J. (1984). *An Adlerian lexicon*. Chicago, IL: AIAS, Ltd.
- Rareshide, M., & Kern, R. (1991). Social interest: The haves and have nots.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47(4), 464-476.
- Rennebohm, S. B., Seebeck, J., & Thoburn, J. W. (2017). Attachment, dyadic adjustment, and social interest: An indirect effects model.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3(3), 208-224.
- Rizzuto, A. M.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본 발간일, 1979)
- Rothbard, N. P. (2001). Enriching or depleting? The dynamics of engagement in work and family rol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6(4), 655-684.
- Schaufeli, W. B., Bakker, A. B., & Salanova, M. (2006). The measurement of work engagement with a short questionnaire: A cross-national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4), 701-716.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oane, E., Truss, C., Alfes, K., Shantz, A., Rees, C., & Gatenby, M. (201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new measure of employee engagement: The isa engagement scal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5(5), 529-547.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 Thompson, R. A. (2008). Early attachment and

- later development: Familiar questions, new answer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48-365).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2522122_Early_Attachment_and_Later_Development_Familiar_Questions_New_Answers.
- Wang, Y., & Qin, J. (2011). *The structure of preschool teachers work engagement survey in Chin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and Humanity, Singapore.
<http://www.ipedr.com/vol5/no2/103-H10248.pdf>.
- Warr, P., & Inceoglu, I. (2012). Job engagement, job satisfaction, and contrasting associations with person-job fi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7*(2), 129-138.
- Waters, E., Merrick, S., Treboux, D., Crowell, J., & Albersheim, L.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A twenty 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3), 684-689.
- Watts, R. E., & Trusty, J. (1995). Social interest and counselor effectiveness: An exploratory study. *Individual Psychology, 51*(3), 293-298.
- Weber, D. A. (2003). A comparison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attachment theory.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9*(3), 246-262.
- West, M., Sheldon, A.,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12), 738-741.

1 차원고접수 : 2021. 01. 18.

수정원고접수 : 2021. 02. 25.

최종게재결정 : 2021. 03. 25.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arly Parental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and Social Interest on Work Engagement in Child Care Center Teachers

Kim, KyoungEu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Kim, Youn-A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 teachers' insecure-anxious/ambivalent attachment, social interest and work engagement, and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rest. The participants were 207 preschool teachers in K province who agreed to be involved in this study. Early Parental Attachment Scale (EPAS), Social Interest Scale, and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9) were used for the survey. A hypothesized model and an alternative model were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preschool teachers' insecure-anxious/ambivalent attach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social interest and work engagement. Preschool teacher's social interest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work management. Preschool teachers' insecure-anxious/ambivalent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work engagement via social interest. Implications to enhance preschool teacher's work engagement were discussed,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a teacher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est.

Keywords: social interest, insecure-anxious/ambivalent attachment, job engagement, preschool teachers